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원자력,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흥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하고 기백이 넘치는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원자력산업계도 한층 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해에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와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말처럼, 미래를 대비하며 고난과 역경에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한전을 필두로 한 Team Korea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UAE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2호기는 연료장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복수호기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Team Korea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1호기의 성공적 상업운전은 대한민국 최초 수출 원전인 APR1400의 기술적 우수성과 Team Korea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관리 능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UAE현장 무재해 1억 시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여 한국의 원전건설 안전관리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美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서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한전은 UAE원전의 성공적인 완수와 후속 원전 수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팬데믹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나라들

의 관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UAE 등과도 국제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수출은 한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대항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서로 협력해야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전은 원전수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NIF**